

Twists and Turns in My Life as a Life Scientist

Yeon-Soo Seo, Professor

Department of Biological Sciences,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any script, there are inevitably dramatic elements, called 'twists and turns' in its story. Inherently, they are strikingly shocking, but shouldn't be preposterous. In addition, they are predictable, although not easily noticeable, since they are hidden as a foreshadowing. I think this is the most important point that every script writer should keep in mind.

I first thought that the script of my life contained a story that I myself have been writing throughout my life. In retrospect, however, I now feel like as if I had lived a life preset in the script written by somebody else. This is because my life was full of utterly unexpected 'twists and turns', thrilling and adventurous, that are sometimes enjoyable, and other times agonizingly painful.

Time goes by without fail, and I am facing soon the moment of retirement as a professor from Department of Biological Sciences, KAIST. When traveling on a motor cycle in scenic mountainous areas, I always find twists and turns in the form of dangerous roads and steep hills. Today, I would like to share with you the 'twists and turns' that I experienced as a life scientist. I would like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life science with pride, but not with bragging, by showing how I got through the maze of life full of challenges and adventures.

어떤 대본이든, 담긴 이야기에는 '우여곡절'의 극적인 요소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본질적으로 독자에게 인상적인 큰 충격을 줍니다. 하지만 터무니없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들은 복선으로 숨겨져 있어 쉽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이 점은 모든 시나리오 작가가 대본을 쓸 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내 인생대본에는 내가 직접 평생 써내려 온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지금은 다른 누군가에 의해 쓰여진 대본에 미리 정해진 인생을 살아 온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우여곡절', 때로는 즐겁고 때로는 매우 고통스러운, 짜릿함과 모험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가고 어느덧 KAIST 생명과학과 교수로 은퇴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산악 지역을 오토바이로 여행할 때, 항상 위험한 도로와 가파른 언덕 형태의 구비치는 길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생명과학자로서 겪은 인생의 '우여곡절'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도전과 모험으로 가득한 인생의 미로를 헤쳐 나온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랑이 아닌 자부심으로 생명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해 보이고 싶습니다.